

# 無에서 이룬

## 電氣主任 技術者協會

世上의 모든 것은 進化되는 過程에 있다. 지난 79. 9. 6日자로 當協會(大韓電氣協會)와 統合된 大韓電氣技師協會의 前身인 電氣主任技術者協會의 創立 當時의 이모저모를 알아 보는 것도 電氣人들 에게는 뜻이 있으리라. 여기 當時의 產婆役을 맡았던 筆者로부터 그 回顧談을 들어 본다. (編輯者·註)

姜錫圭

湖西大學學長

### 한전 강당에서 협회창립 총회

해방이 되자 우리나라의 모든 制度는 日政 것으로부터 우리나라 것으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 권력이나 利權 등에 관계되는 制度는 재빨리 바뀌고 그 자리들은 즉시 채워졌으나 우리 電氣技術者에 관한 制度같은 것은 권력이나 利權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서인지 뒤로 밀리고 처졌다. “電氣란 사람의 生命과 財産에 직결되는 것이니 만큼 制度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들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1962年 3月 27日에야 電氣主任技術者 資格檢定令이란 것이 나와 우리들 電氣技術者들의 설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일본 것을 성의없이 그대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文章이 잘 안통하고 내용이 日本式 그대로였다. 日本 것의 번역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 습이 나와 우리나라 것으로서의 電氣主任技術者制度가 생긴 것이다.

1963年 12月 어느날 電氣主任技術者協會(後의 電氣技師協會)창립총회가 있으니 나오라는 전갈을 받았다. 장소는 韓電강당이였다. 여기에서 전국전기수용가에서 電氣主任技術者들이 한 3~400명모여 전기 사용에 관한 당국의 지시와 한전측의 요망 사항을 전달받는 모양이었다. 商工部의 소집 통고를 받고 의무적으로 모인 것이다.

내용은 한마디로 節電에 관한 것이었다. 그때의 節電은 요사이의 節電과는 의미가 좀 달랐다. 요사이의 節電은 필요 이상의 낭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그때의 節電은 필요한 것도 줄여 쓰라는 것이었다. 사람이 하루에 세사발 밥이 필요한데 네사발 먹지 말라는 것이 요사이 節電이라면 두사발만 먹으라는 것이 그때의 節電이다. 그때는 電氣가 대단히 모자라서 밤이면 斷電되는 때가 하루 저녁에도 몇번씩 있는가 하면 아예 밤새도록 전기가 안들어와 촛불을 켜야 하고 따라서 초는 각 집마다

꼭 비치해야 하는 日用 필수품이었다. 筆者가 그때 「原子力概說」이란 책을 썼는데 그 머릿말에 이런말을 쓴 기억이 난다. “最新 科學인 原子力에 관한 책을 쓰고 있는 이 순간 斷電이 되어서 촛불을 켜고 원고를 쓰고 있으니 우리 사정이 답답하기도 하다.”

이 節電지시전달會가 끝나고 바로 그 사람들을 그대로 그 자리에 앉힌채 대한전기주임기술자협회 창립총회라는 것을 열게 되었다. 節電지시 전달會의 閉會가 선언되자 이어서 協會창립총회를 한다고 아나운스했는데도 참석인원의 1/3정도는 벌써 빠져나가 버렸다. 급하 나머지 남은 사람들을 억지로 불러들여 앉히고 閉會선언을 하고 국민의례에 들어가 “국기배례”란 호령이 내렸다. 이 “국기배례”가 효과가 있었다. 나가려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서 배례를 하게되고 그래서 그 순간 엄숙한 분위기가 되었고 이것이 會進行 시작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만큼 電氣技術者들 자신들이 이런 協會에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협회창립을 주선하던 사람들이 창립총회를 해치우기 위한 전략으로 節電指示傳達會 직후를 택한 것이다.

### 當時의 主任技術者 制度

당시의 전기기술자들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식으로 전기주임기술자 자격증 (요사이의 전기기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는 시험에 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이다.

電氣主任技術者 資格檢定令이 1962년에 나오고 그해 제 1회 檢定試驗이 실시되어 1급 5명, 2급 1명, 3급 43명이 합격하였다. 제 2회 시험은 1963년에 있었는데, 이 해는 협회가 창립된 해이다. 1급 2명, 2급 3명, 3급 15명이 합격되었다. 이 때 합격률은 1, 2, 3급 합하여 응시자의 4%정도였다. 그래서 시험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들이 있어 그

후 약간 개정되었으나 1972년경까지는 20%를 넘지 못했다. 電氣는 다른 계통의 자격시험보다 어려웠다. 그러므로 전기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본인은 물론 우쭐하고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다.

둘째는 구술시험(면접)만 보고 자격을 인정하는 전형검정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는 資格檢定令이 나오기 전에 전문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경과조치였다. 해방후 근 20년 동안에 전문학교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우대한 것이다. 1966년까지 1급 389명, 2급 373명이 나오고 3급은 없다. 1967년 이후는 이 제도가 소멸됐다. 응시자의 합격률은 100%. 셋째는 日政때 당시 제도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분들을 위하여 역시 경과조치로 무시험 검정에 의하여 자격을 주는 제도가 있었다. 이 제도에 의해서 자격을 딴 사람은 1급 10명, 2급 43명, 3급 236명이었다. 이 제도는 1970년까지 있었고 1971년이후는 이 제도도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전기주임기술자 협회(후에 대한전기기사협회로 변경) 창립총회때의 전기주임기술자(요사이의 전기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수는 日政때 소지자로부터 시험 합격으로 소지하게 된 자를 모두 합하여 500명 정도 되리라 추측되었다. 그 때는 자격을 딴 사람의 수도 적었지만 자격증이 있어도 취직도 잘 안되고 그런가하면 한편으로는 무자격자도 곧잘 취직이 되어서 어느 공장의 전기책임기술자로 버젓이 근무하고 있었다.

창립총회는 安再榮씨가 임시의장을 맡았는데 그분 생기기도 그렇지만 會議進行도 부르도저식으로 막 밀어 붙였다. 질문 받을 것도 없고 긴 설명도 없고 척척 진행하여 無修正 정관 통과, 無修正(非前 협의하여 정한대로) 任員 선정, 일사천리 1시간 정도로 대한민국 유일의 “大韓電氣主任技術者協會”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사실 이런 능률적인 會議進行이 그 때는 필요했다. 큰 권력이나 이해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意見이 나오기 시작하면 제각기 잘났다고 異議가 繼出하고 나중에는

異議를 위한 異議를 내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네 습성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技術者들은 잘 고집이 세어서 사소한 것을 한없이 캐고 따진다.

요사이의 우리 협회는 규모도 커지고 꼭 해야 할 일거리도 많지만 당시만해도 기술자들의 단순한 친목단체에 불과하였다. 물론 정관에는 협회 목적란에 우리나라 電氣技術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운운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名目上 내걸은 것에 불과하고 우선 모이는 것이 급하고, 모이자니 親해져야만 했다. 요사이 우리 협회는 正式 자격증을 가진자만이 會員이 될 수 있으나 그 때는 자격증을 안 가진 자도 회원이 될 수 있었고 (그런 분들이 회사공장에 전기책임자로 많이 취임하고 있었다) 이런 회원수가 상당수 실제로 加入되어 있었다. 그 때 정관에도 “자격증을 가진 자가 회원이 된다”로 해 놓고 “단, 상공부장관이 잠정적으로 인정한 주임기술자도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를 삽입하였었다. 漢陽大 金俊植 교수님이 創立總會 축사를 해 주셨는데 축사 말씀中에 “형광등은 스위치를 자주 껐다 켜다 하면 전력 소모가 더 많아지므로 나쁘다”는 말씀이 있었다. 기술자다운 축사였다고 기억된다.

실상, 이 창립총회가 있기 몇달전 부터 安再榮, 金善慶, 申昌均, 崔萬俊, 李熙生, 金鍾民, 金正興, 洪淳弼, 朴世鳳씨 등의 일선기술자들이 이런 會를 만들어 보자고 여러번 모이고 商工部에서는 電氣局長 朴容澈, 電力課長 崔燮呂(작고)씨가 적극 후원하고 서주열 기자(작고)가 실무적으로 연락하여 창립총회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초대 임원을 다 맡았다. 나는 그때 明知大 교수였는데 一線 技術者, 그러니까 初代 任員들과는 거의 初面이었다. 尹日重 會長과도 별 교분이 없었다. 尹日重씨가 年老하시니 나더러 도움을 役을 맡으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安再榮씨와 같이 벼락감투로 부회장이 되었다.

총회가 끝나고 自祝筵 任員 첫 對面宴을 베풀었

다. 宴이라야 대중식사집에 가서 불고기였다 소주 한잔의 파티였다. 任員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호기심있는 일반회원이나 任員의 친구들도 같이 모였다.

한 20명 모였는데 부산 방적회사서 온 박원우 씨가 기억난다. 談才도 좋았지만 술도 세어서 그의 몇 사람과 같이 나를 집중 공격한다. 그 좌중에서 나만이 유독 初面이기 때문에 姜錫圭란 자가 어느 당나귀 백다귀냐, 좀 술시험을 해보자는 것인 것 같았다. 나는 술이 약해서 대단한 곤욕이었지만 유쾌했다. 이 술시험을 통과하고 나니 모두들 친해졌다. 사람이란 먹는 本能과 交友本能이 습될 때 유쾌해지는 것 같다.

### 첫 事務所의 任員會

이렇게 하여 창립총회는 끝났는데 사무실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였다. 정관에는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고 했지만 이 넓은 서울 어디다 두느냐, 협회 소유 사무실은 물론 없고 임대할래야 집세 낼 돈도 없고 집세 낼 돈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무실을 유지할 경비예산이 없다. 상의 끝에 내가 봉직하고 있는 明知大 電氣課長室을 임시 사무실로 쓰기로 했다. 그때 내가 明知大 전기과장이었고 혼자 쓰는 방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사무원은 내 방에 있던 助教(朴成熙씨 : 현 천원공전대 교수)를 교동비 정도를 준다는 조건으로 일을 보게 했다. 協會 沿革에 의하면 창립총회는 63. 12. 14에 있어 협회가 창립되고 64. 8.21에 상공부장관의 법인인가가 나오고 이날부터 사무소가 열린 것처럼 되어 있으나 사실은 창립총회 직후부터 그러니까 법인인가 나기 전부터 明知大 안에 있었다. 조그만한 협회 간관을 처음에는 明知大學(그때는 서울文理實科大學이란 이름)이란 큰 간관옆에 걸어 놓았는데, 大學 간관과 비교하니 너무 작고 조라해서 보기 싫을 뿐 아니라 大學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회 간관을 大學正門에 걸어 놓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하여 메어다가 내 방앞에 걸어 놓았다. 또 사무를 助教보고 보라하니 그 助教가 학생이었는데 사회도 모르고 사무 볼 줄도 모르고 해서 안되게 되었다. 협회는 빈약하여 보잘 것이 없지만 그래도 會員名簿, 會議錄, 會計帳簿 등 있을 것은 있어야 하고 처리할 사무는 처리해야 했다. 그래서 明知大 서무과 직원인 方씨(작고)에게 月 2,000원씩 手當을 주기로 하고 사무 일체를 위촉하기로 하였다.

任員會는 月 1회 정도했는데 學長室을 빌어 썼다. 그때 明知大學長은 前 統一院장관 俞尙根박사였는데 우리 협회를 잘 보셔서 모든 편의를 보아 주셨다. 사무실도 빌려 주고 사무원도 빌려 주고 學長室까지 빌려 준 것이다. 이 紙上을 통하여 감사 드린다.

어느날 任員會에 商工部 電力課長인 崔燧昌씨가 臨席官으로 참석하였다. 財政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자(너무 궁해서 당장 쓸 돈이 하나도 없었다) 一金 2,000원을 내 놓는다. 당시는 臨席官이 민간 단체에 임석하면 교통비라고 해서 봉투를 받는 것이 상례였는데 반대로 자기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물론 참석한 任員들도 호주머니 돈을 각자 내놓았다. 그 무렵의 任員會에서는 어떤 任員은 오늘은 돈을 안가지고 왔으니 다음에 꼭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 쪽지를 써 놓는 일도 있었다. 協會의 財政은 빈약했지만 열성은 대단하여 어떤 때는 열렬한 토의로 시간가는 줄을 몰라 몇 시간씩 끄는 때도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 곧 될듯 될듯하니까 희망찬 이야기로 열이 오르는 것이다. 會議가 끝난 뒤에는 속이 출출해져서 食堂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러나 協會에 돈이 없다. 누군가가 오늘은 내가 내겠다고 나서게 된다. 이렇게 초창기 任員會는 가난했지만 人和가 있었다 원래 권력과 利害가 많은 곳에는 人間이 사악해져서 이런 오순도순한 人和가 없어지는 것 같다.

그후 大學 안에 大學과 관계없는 社會團體 事務所를 둔다는 것이 안되겠다하여 옮길 곳을 물색한

결과 돈 안내는 곳이라야겠다 하여 서울 工科學院으로 들어 가기로 했다. 1965년 2월 28일에 사무실을 옮겼다. 學院측도 得이 있었다. 電氣技術을 가르치는 이 學院에서 볼 때 협회 간판을 붙이면 格도 높아지고 廣告도 잘되기 때문이다. 共存共榮이랄까……

어떤 청년을 보통 회사 사무원 월급의 반정도를 주기로 하고 사무원으로 쓰기로 했다. 그 청년은 자기 집이 부자여서 월급에 구애받지 않고 사회 경험이나 쌓자는 생각으로 오겠다는 것이고 그 부친 되는 분이 가지고 있는 빌딩에 사무실을 하나 무료로 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무엇인가 꺼림칙해서 거절했다. 이 청년도 몇달 있다 나가고 그후 한 1年間 李鎭熙씨(현 서울공과대학원장)가 사무원 겸직을 했다.

이제는 간판을 좀 큰 것으로 하고 글씨도 잘 써서 붙여야겠다고 말은 합의가 되었는데 역시 돈이 없다. 그 때 부회장이인 安丙榮씨가 차사고로 장기 入院中이어서 理事인 金鍾民씨가 임시 부회장이 되었는데 그 분이 자기가 간판을 제작하겠다고 맡아 가지고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의 금성방직공장공작실에서 크고 좋은 간판을 만들어 직접 어깨에 메고 와서 學院 看板과 나란히 붙여 놓았다. 學院이란 광고가 꼭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學院이고 간판이 크고 좋다. 서울 工科學院 간판도 크고 좋았다. 이 學院 看板과 같을 만큼 크고 좋은 간판이었다.

